



제25-3호  
2025년 5월 15일

202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수학중점학교

수다 일보

전주한들초등학교

<https://school.jbedu.kr/handeul>

063-227-1851

[ 2025-82호 ]



발행: 전주한들초등학교(수다방) / 발행인: 전주한들초등학교장 조영인 / 편집: 수학담당교사

# 사랑해♥ TODAY MATH 4랑해

## [숫자송]

1초라도 안 보이면  
2렇게 초조한데  
3초는 어떻게 기다려  
이야이야 이야이야  
4랑해 널 사랑해  
5늘은 말할거야  
6십억 지구에서 널 만난건  
7럭키야  
사랑해 요기조기 한눈 팔지 말고 나를 봐  
좋아해 나를 향해 웃는 미소 매일매일 보여줘  
8딱딱딱 뛰는 가슴  
9해조 내마음  
10년이기도 너를 사랑해  
언제나 이맘 변치 않을게



숫자송 동영상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생각보다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횟수가 적을지도 모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아이가 놀아달라며 조릅니다. 부모님은 쌓인 집안일 앞에서 “일 이랑 해”, “이랑해”, “삼이랑해” 등으로 이야기하다가 “사랑해”할 때 아이가 웃으면서 포옹한다는 우스개 소리도 있습니다. 오해로 들어도 웃음이 지어지며 기분이 좋아지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주변에 감사의 말을 전해야 하는 분들께도 꼭 말해 봅시다.

\* 5월을 맞이하여 디지털 숫자를 종이로 접어보고, 가족의 중요한 날을 디지털 숫자로 나타내어 봅시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체스페이퍼 폴딩 퍼즐도 즐겨봐도 좋겠지요? 아니면 함께 손을 잡고 도서관에 가서 수학도서를 읽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항상 곁에 있어서 소중함을 잘 못 느끼는 사람들에게 꼭 감사와 사랑을 전하는 하루 되세요.

# ★개념 쑥쑥 수학도서 = 내일은 수학왕

여러분 수학 도서를 아시나요? 수학도서는 문제를 푸는 수학책이나 문제집이 아니라 수학의 원리, 역사, 응용, 철학 등을 다루는 책입니다. 이러한 책들은 문제를 풀게 하지는 않지만 수학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힘을 기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수학도서를 읽으면 “개념 쑥쑥”, 개념이 깊게 이해되고 수학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일은 수학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수학적 사고력과 독해력이 동시에 자란다고 합니다. 이런 수학도서 안 읽을 이유가 없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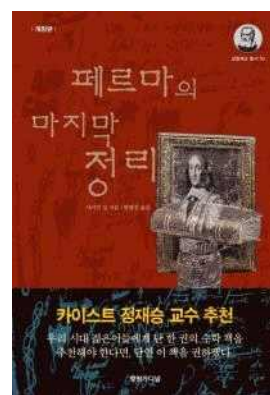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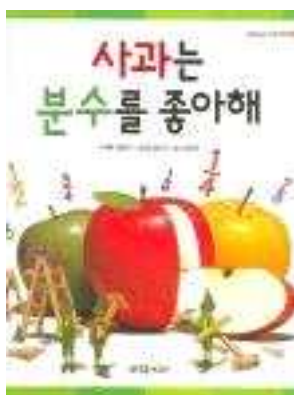
우리 학년에 맞추어 추천하는 다음 수학도서를 읽어 볼까요?

[전주한들초 도서관에 있습니다.]

[1~2학년] 대장수 뽑기 대소동

[3~4학년]

[5~6학년]



# 수학과 만나는 세상

## : 디지털 숫자 종이 접기



디지털 숫자  
종이접기

디지털 숫자란 7개의 막대 조합으로 이루어진 숫자예요. 시지털 시계, 전자계산기, 버스 정류장 전광판, 엘리베이터 층 수 등 디지털 기계에 사용되기 때문에 디지털 숫자라고 불립니다. 이 숫자는 평면도형의 이동이나 대칭 등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종이 접기로 디지털 숫자를 만들고 가족의 중요한 날을 나타내 봅시다. [만드는 방법: 위 QR코드를 통해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사진출처 <https://blog.naver.com/sonjaengi/223494615535>



# 도전! 수학 퍼즐

## 체스페이퍼 폴딩 퍼즐



체스 페이퍼  
폴딩 게임  
[가족과 대결]

그림 출처: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antares04&logNo=221449911185>

|   |   |   |   |
|---|---|---|---|
| 4 | 5 | 3 | 3 |
| 2 | 2 | 3 | 2 |
| 8 | 4 | 4 | 4 |
| 8 | 5 | 2 | 3 |

|   |   |   |   |
|---|---|---|---|
| 5 | 1 | 7 | 7 |
| 5 | 1 | 1 | 1 |
| 6 | 8 | 6 | 6 |
| 6 | 8 | 7 | 7 |

체스페이퍼 폴딩 퍼즐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페스판이 그려진 종이를 접는 게임입니다. 단, 게임판 앞뒤로 숫자가 배열되어 있습니다.

직접 써서 만들 수도 있지만, 함께 배부된 별도 파일을 인쇄해서 사용해도 좋습니다.(함께 제공된 파일은 수만세에서 디지털 숫자 종이 접기를 해봤기 때문에 연계해서 디지털 숫자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체스페이퍼 폴딩 퍼즐은 같은 숫자가 가로 2칸, 세로 2칸의 사각형에 모두 들어가게 맞추는 퍼즐입니다. 다음 방법을 살펴보고 함께 해 봅시다.



① 종이의 반을 접는다.

② 가운데 굵은 선을 따라 자른다.

③ 가로 2칸, 세로 2칸에 같은 숫자 4개가 오도록 이리저리 뒤집거나 접는다. 단, 같은 숫자 4개만 보이더라도 가로, 세로 각 2칸이 아니라면 안된다.

# 이달의 수학자

## 조선시대 수학자이자 수학 명가에서 태어난 19세기 수학자는?

이상혁 (李尙爌)

조선시대 수학자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중국 수학자와 수학 문제로 서로 문답을 나누었던 홍정하를 흔히 떠올릴 텐데요. 홍정하의 가문과 이상혁의 가문이 바로 조선시대 수학 명가였습니다. 그 중 이상혁의 가문은 이상혁의 5대조 이영현부터 무려 8대에 걸쳐서 조선시대의 수학 분야였던 '주학' 시험에서 합격자를 배출한 수학 명가입니다.

이상혁은 홍정하보다 100여년 뒤에 태어났습니다. 이상혁은 기존의 조선시대 수학의 흐름과는 다른 행보를 보였는데요. 기존 조선시대 수학은 대부분 문제 풀이에 집중했었는데 이상혁은 이를 논리적으로 풀어낸 수학책을 썼습니다. 방정식에 대한 '차근방몽구(1854년)', 기하와 삼각법에 대한 '산술관견(1855년)', 홍정하의 구일집과 함께 조선의 수학을 대표하는 수학책인 '익산(1868년)'을 저술했습니다. 또한 이상혁은 수학 뿐만 아니라 천문학에서도 큰 업적을 남겼는데요. 조선의 북극고도에 따라 조선에 적합한 해시계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상혁의 아들 이시용도 1861년에 운과와 1871년 주학 취재에 합격하였다고 합니다. 가정의 달에 만난 진정한 수학명가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사진 및 내용 출처]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44627> / <https://m.dongascience.com/news.php?idx=46362>



조선 후기 수학자 이상혁이 자신의 연구결과를 수록한 수학서 '산술관견(185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공